



한·EU의 서비스교역 동향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강 유 덕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3460-1123)

1. 서론
2. 한국의 서비스산업 교역 현황
3. EU의 서비스산업 교역 현황
4. 한·EU의 서비스교역 동향
5. 한·EU 간 서비스산업 경쟁력 비교
6.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주요 내용

- ▶ EU는 세계 제1의 서비스교역국으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이 교역 점유율 감소를 겪고 있는 데 반해,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여왔음.
- 2007년 EU는 총 840억 유로의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에 특화된 영국, 룩셈부르크 등은 큰 흑자를 기록했으며, 부문별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사업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많은 서비스수지 흑자를 나타냄.
- ▶ EU는 교역규모면에서 한국의 두 번째 수출시장이며 한국은 대EU 상품수지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 있으나 서비스수지에 있어서는 2004년 이후 적자를 기록함.
- 대EU 서비스수출은 감소하거나 정체를 보이는 반면, 수입은 매년 평균 30%씩 증가, 2007년 32.5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함.
- 영국, 덴마크,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유럽국가와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건설서비스와 정부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서 높은 수입편중성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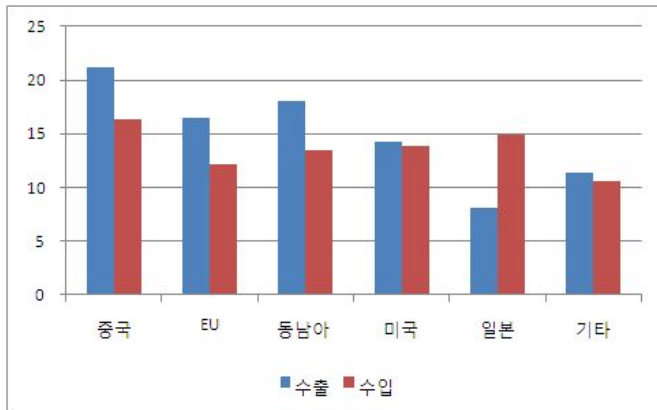
- ▶ 한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EU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서유럽국가들과 비교할 때 많은 격차를 나타냄.
- 한국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유로존의 2/3, 유럽의 서비스 강국인 룩셈부르크의 1/3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을 보임.
- 무역을 통한 현시비교우위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건설서비스, 금융서비스, 운수 등의 분야에서 EU에 대해 비교우위를 보이나, 그 외 대부분의 분야에서 비교열위를 보임.
- ▶ 한·EU FTA에서 한국은 제조업분야에서 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EU 서비스산업의 국내 시장으로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 국내 서비스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지적재산권이 강화될 경우, 금융, 사업서비스, 특허권 분야 등에서 EU의 국내 시장 진출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 국내 시장에서 미국과 EU의 서비스업체가 경쟁하는 양상을 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EU FTA를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음.

1. 서론

- 한·EU FTA는 양측의 실질적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든 가운데,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한·EU FTA는 2007년 5월 제1차 협상이 시작된 이후 2009년 3월 제8차 협상까지 진전이 된 상태임.
- 한국과 EU는 관세환급 및 원산지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질 경우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
- 한·EU 교역은 2001~07년 기간 동안 연평균 9.5%의 성장을 기록하여, 2007년 양측의 교역규모는 773억 유로(상품: 661억 유로, 서비스: 112억 유로)에 달함.
- 교역규모 면에서 EU는 한국의 두 번째 교역국이며 한국은 EU의 여덟 번째 교역국임.

그림 1. 한국의 주요국과의 교역비중 비교(2007년)

(단위: %)



자료: 한국은행.

- 한국은 2007년 상품교역에서 165.6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교역에서는 32.5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대EU 교역에서 상품수지 흑자, 서비스수지 적자의 패턴을 나타냄.
- 한국의 수출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무역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본고에서는 한국과 EU의 서비스교역에 대한 현황과 산업경쟁력을 점검해 봄으로써 한·EU FTA의 타결 후 양국간 서비스교역의 변화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함.

2. 한국의 서비스산업 교역 현황

가. 국내 서비스산업 현황

- 국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국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중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국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7년 GDP의 57.6%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77.6%), 프랑스(77.2%), 독일(68.7%), 일본(68.5%)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¹⁾
-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대부분의 고용이 내수 중심의 저부가가치 산업인 도소매, 음식, 숙박 등에 집중되어 있음.
-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전체 부가가치의 9.7%에 불과하나 고용비중의 32.7%를 차지하는 등 부가가치 대비 고용편중 현상이 심한 저효율 구조를 나타냄: (고용비중 ÷ 부가가치 비중) = ('00)3.12 → ('07)3.77

표 1. 산업군별 GDP 대비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

(단위: %)

	2000년		2007년		
	부가가치 비중	고용 비중	부가가치 비중	고용 비중	
농림수산업	4.90	0.41	3.00	0.21	
제조업 및 광업	29.9	24.7	28.3	22.4	
서비스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2.6	0.4	2.3	0.4
	건설업	8.4	4.7	8.9	5.5
	도소매, 음식, 숙박	11.2	34.9	9.7	32.7
	운수창고, 통신업	7.0	0.96	7.2	0.91
	금융,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20.1	12.5	21.6	15.2
	공공, 사회, 개인서비스업	16.1	22.0	19.1	23.8
	합계	65.4	75.5	68.8	78.6
	합계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 제외)	54.4	70.4	57.6	72.6

주: 고용비중은 2000년과 2006년의 자료임.
자료: OECD STAN; 한국은행.

-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 부동산, 사업서비스의 경우 21.6%('07)의 부가가치 비중을 보이나,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 룩셈부르크: 47.3%, 프랑스: 33.9%, 미국: 32.8%, 영국: 31.9%, 독일: 29.2%(이상 '07), 일본: 26.7%('06)

1) 서비스산업에서 전기, 가스와 건설업은 제외됨.

나. 한국의 서비스산업 교역 현황

■ 한국은 상품수지에서 흑자를 보는 가운데 서비스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함.

- 2008년 한국의 서비스교역 규모는 1,687억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16.4%를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2006년: 1,187억 달러(수출: 499, 수입: 689), 2007년: 1,465억 달러(수출: 663, 수입: 831), 2008년: 1,687억 달러(수출: 760, 수입: 927)

-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 침체로 인한 여행수요의 감소로 2008년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경우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임.

표 2. 서비스수지 적자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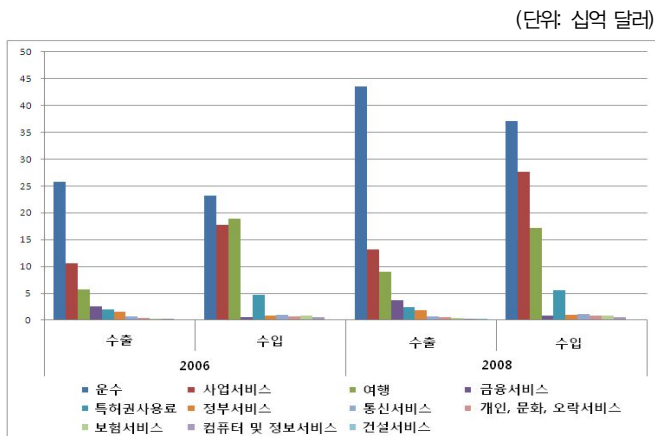
	2004	2005	2006	2007	2008
서비스수지 적자	80.5	136.6	189.6	197.7	167.3
여행수지 적자	62.8	96.0	130.6	158.4	80.5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각년도.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단기간 내에 서비스수지 흑자로 전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분야별로는 사업서비스, 여행, 특허권사용료 등에 있어서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환율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수입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부문의 적자폭은 오히려 대폭 확대됨.

그림 2. 분야별 서비스 수출입 비교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각년도.

- 그러나 운수와 건설서비스 부문에서는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흑자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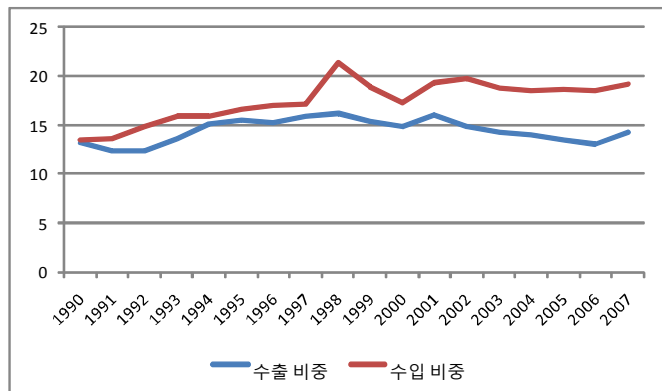
■ 한국 서비스교역에서의 문제점은 수출비중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임.

- 총수출 중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4.3%로 서비스수지 흑자국인 EU와 미국의 28.7%와 29.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서비스수출 비중의 추이는 1990~2008년 기간 동안 12~16% 수준에서 정체한 반면, 서비스수입 비중은 13%('90)에서 21.3%('08)까지 증가함('08: 17.8%).

그림 3. 한국의 총수출, 총수입 중 서비스수출과 수입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은행.

○ 일본과 중국의 경우 2007년 총수출 중 서비스수출 비중이 15.3%와 9.1%에 불과하나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함: (서비스수지 적자÷서비스수지 흑자)= 한국(1.31), 중국(1.06), 일본(1.06)

3. EU의 서비스산업 교역 현황

가. EU의 서비스산업 현황

■ EU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의 80%에 이르는 선진 산업구조를 보여줌.

- 농업과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산업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GDP 비중 - 농림수산업: ('00)2.4% → ('07)1.8%,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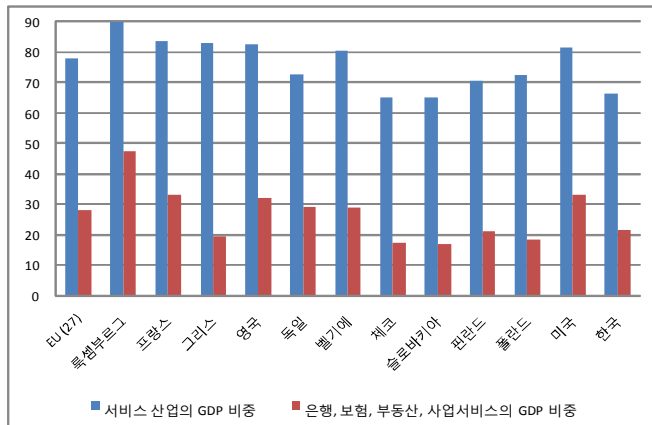
(' 00)22.4% → (' 07)20.1%, 서비스산업: (' 00)75.3% → (' 07)78.1%

○ 고용비중 - 농림수산업: (' 00)8.0% → (' 07)5.6%, 제조업: (' 00)29.3% → (' 07)27.6%, 서비스산업: (' 00)54.6% → (' 07)57.9%

- 서비스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룩셈부르크(89.8%), 프랑스(83.7%), 그리스(82.9%), 영국(82.5%), 벨기에(80.5%) 등 서유럽국가에서 높게 나타나며, 체코(65.0%), 슬로바키아(65.1%), 폴란드(72.5%) 등의 신규가입국들은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임.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이나, 이미 서비스산업이 주를 이루는 소국(룩셈부르크)이나 일부 동유럽국가(체코,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제조업 비중의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4. 서비스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비교(2007년)²⁾
(단위: %)



주: 미국의 경우 2006년 자료임.
자료: "OECD Factbook 2009."

■ EU의 서비스산업은 한국보다 더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되어 있음.

- 서비스산업 중 고부가가치 산업인 은행,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ISIC, J~K산업군)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룩셈부르크가 47.3%, 프랑스 33.2%, 영국 31.9%, 독일이 29.2%에 이르는 등 EU 전체 GDP의 28.1%가 이 산업군에서 나오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21.6%에 그치고 있음.

2) 서비스산업에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부문을 포함하지 않으나 건설업을 포함한 수치임.

나. EU의 서비스교역 현황

■ EU는 세계 1위의 서비스교역국임(역외교역 기준).

- 2007년 EU의 서비스교역 규모는 역내교역이 1조 3,022억 유로, 역외교역이 9,129억 유로(841억 유로 흑자)에 달함.

- 이는 세계 전체의 서비스교역 규모인 4조 8,187억 유로의 27.0%와 18.9%에 해당하며,³⁾ 세계 총서비스교역에서 EU의 역내교역을 제외했을 때에도 세계 서비스교역의 26.0%를 점함으로써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2, 3위인 미국과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음.

○ 세계 서비스교역 점유율은 EU(26.0%, 역내무역 제외), 미국(18.1%), 일본(5.8%), 중국(5.2%), 한국(3.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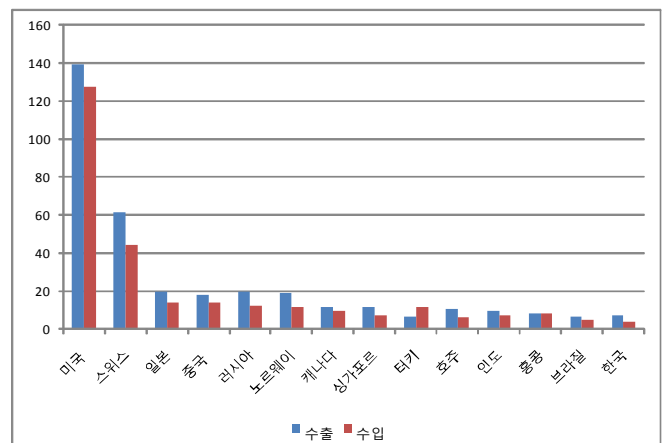
○ (' 07)EU의 역외상품교역: 2조 6,752억 유로(수출: 1조 2,414억, 수입: 1조 4,338억), 역외서비스교역: 9,129억 유로(수출: 4,985억, 수입: 4,144억)

- EU의 세계 서비스교역 점유율은 증가 추세에 있는데(' 06년: 25.7%), 이는 중국의 약진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미국, 일본과는 대조를 이룸: 미국 (' 06:19.3% → ' 07:18.1%), 일본 (' 06:6.3% → ' 07:5.8%), 중국 (' 06:4.8% → ' 07:5.2%)

- 전체 EU의 서비스교역 중 미국과의 교역이 29.2%를 차지하며, 스위스(11.6%), 일본(3.6%), 중국(3.5%), 러시아(3.4%) 등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5. EU의 주요 서비스 교역상대국(2007년)

(단위: 십억 유로)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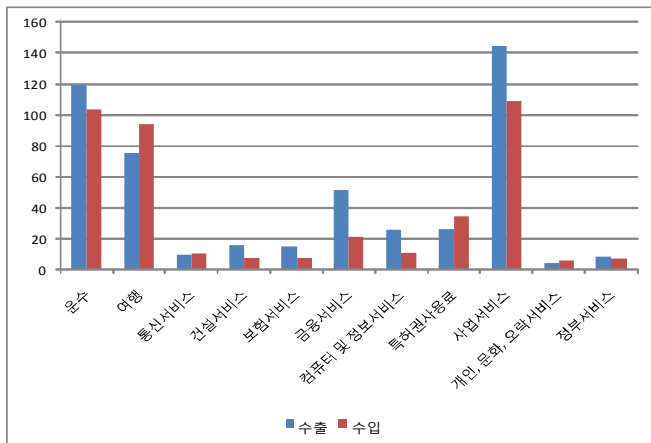
3)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 산업별로는 교역량이 많은 사업서비스, 금융서비스, 운수 등에서 흑자를 기록함.

- 분야별 교역비중은 사업서비스가 27.7%, 운수가 24.4%를 차지하며 그 뒤를 여행이 18.6%, 금융서비스가 7.9%, 특허권사용료가 6.6% 등이 차지하는데, 사업서비스에서 354억 유로, 금융서비스에서 307억 유로, 운수에서 155억 유로,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에서 145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함.

그림 6. EU의 분야별 서비스교역량(2007년)

(단위: 십억 유로)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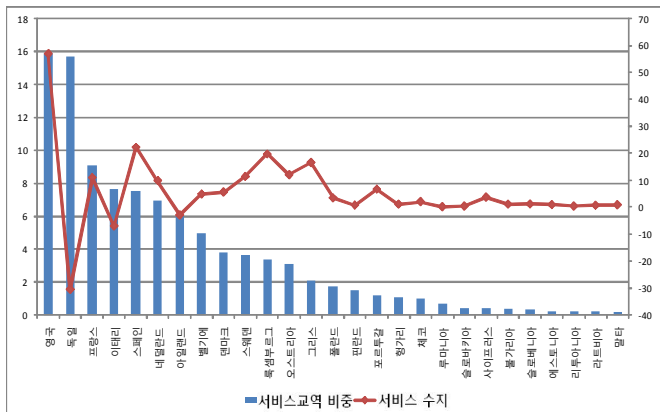
■ 국가별 교역량에서는 영국, 독일 등의 교역비중이 높은 가운데, 서유럽 중소국이 활발한 서비스교역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영국이 15.9%로 EU의 대외 서비스교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독일(15.7%), 프랑스(9.1%), 이탈리아(7.7%), 스페인(7.5%) 등이 뒤따르고 있음.

그림 7. 국가별 EU 대외 서비스교역 비중 및 서비스수지(2007년)

(단위: %)

(단위: 십억 유로)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이 57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며 EU 최대의 서비스 흑자국 지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스페인(222억), 룩셈부르크(197억), 그리스(166억), 오스트리아(120억), 스웨덴(114억) 등이 따르고 있으며, EU 회원국 중 제2의 서비스교역국인 독일은 350억 유로의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영국과 룩셈부르크는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각각 416억 유로와 162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며, 그리스는 여행에서 113억 유로의 흑자를 보는 반면, 독일은 여행에서 412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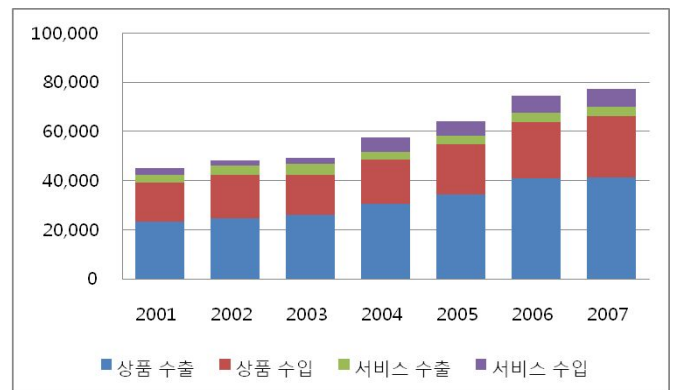
4. 한·EU의 서비스교역 동향

가. 한·EU의 서비스교역 관계

■ 한국은 EU와의 상품교역에서 2006년 179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서비스교역에서는 2004년 이후 적자를 보여왔음.

그림 8. 한·EU 간의 교역량 추이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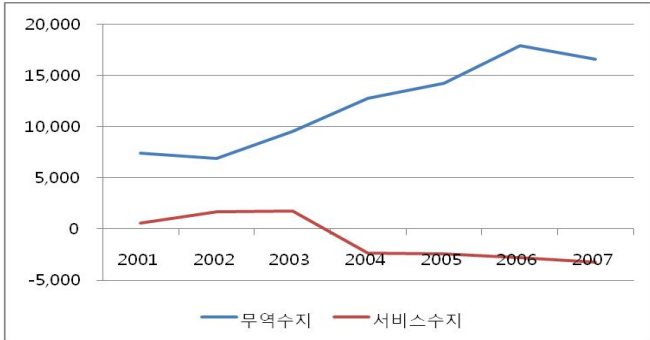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2003년 이후 대EU 서비스수출은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반면, 수입은 매년 평균 30%씩 증가하여 대EU 서비스수지는 200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07년에는 32.5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함.

○ 대EU 무역수지(상품+서비스)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상품수지 흑자폭이 2006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감안할 때, 대EU 무역수지의 흑자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그림 9. 한·EU 간의 상품 및 서비스수지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분야별로는 건설서비스와 정부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함.

- 분야별 교역비중으로는 운수가 4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이어서 사업서비스(24%), 특허권사용료(8%), 여행(7%), 금융서비스(7%) 등의 순임.

표 3. 한국의 분야별 대EU 서비스교역 추이

(단위: 백만 유로)

	2005			2006			2007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전체	3,484	5,912	-2,428	3,973	6,759	-2,786	3,961	7,212	-3,251
운수	1,925	2,230	-305	2,165	2,622	-457	2,163	3,007	-844
해상운수	1,322	1,624	-302	1,504	1,916	-412	1,365	2,348	-983
항공운수	391	538	-147	371	612	-241	331	558	-227
기타운수	213	69	144	291	92	199	465	100	365
여행	236	430	-194	310	589	-279	170	583	-413
업무여행	72	114	-42	120	156	-36	65	164	-99
업무외 여행	164	316	-152	190	435	-245	105	417	-312
통신서비스	25	47	-22	44	61	-17	43	59	-16
우편 및 상업송달	7	27	-20	11	24	-13	10	17	-7
원격통신	18	21	-3	31	36	-5	33	42	-9
건설서비스	198	244	-46	298	210	88	327	153	174
보험서비스	37	83	-46	61	104	-43	56	95	-39
금융서비스	143	364	-221	152	409	-257	208	535	-332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19	102	-83	37	118	-81	35	132	-97
컴퓨터	19	85	-66	37	104	-67	35	109	-74
정보	1	17	-16	0	14	-14	0	23	-23
특허권사용료	122	444	-322	109	595	-486	134	712	-578
사업서비스	718	1,906	-1,188	747	1,978	-1,231	787	1,851	-1,064
중개 및 기타 무역관련서비스	255	283	-28	264	341	-77	234	263	-29
운영리스서비스	4	675	-671	7	684	-677	44	571	-527
기타 사업기술 전문서비스	456	945	-489	473	955	-482	509	1,017	-508
개인문화오락서비스	34	38	-4	20	53	-33	10	62	-52
음향영상서비스	32	33	-1	16	44	-28	7	55	-48
기타 개인문화오락서비스	3	4	-1	4	8	-4	3	7	-4
정부서비스	23	23	0	29	21	8	31	21	10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적자가 가장 큰 분야는 사업서비스, 운수, 특허권사용료, 여행 등이며 전체 누적적자의 84%가 이들 4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수출에 대한 수입의 편중 정도(분야별 수입/분야별 수출)를 비교해 볼 경우, 개인·문화·오락서비스(6.20), 특허권사용료(5.31),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3.77), 여행(3.43) 등에서 수입의 비중이 수출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업서비스의 하위분야인 운영리스서비스는 그 비중이 13에 달해, 높은 수입편중성을 보이고 있음.

나. 국가별 교역관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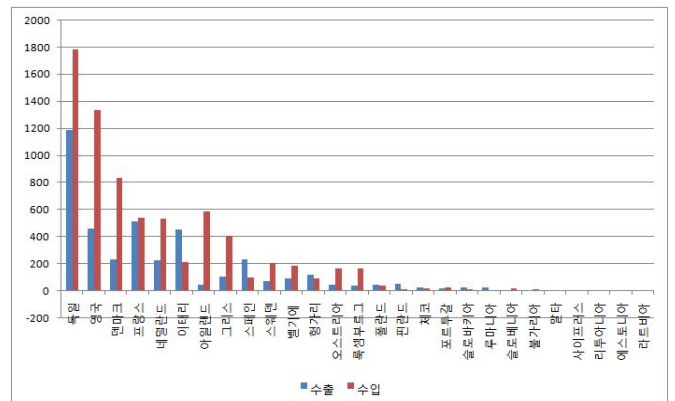
■ 한국은 일부 동유럽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EU국가들과의 서비스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교역규모로 볼 때 독일이 전체 서비스교역의 27%(수출: 30%, 수입: 25%)로 1위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영국(19%), 덴마크(12%), 프랑스(7%), 네덜란드(7%)순임.

- 서비스수지면에서는 영국과의 교역에서 8.8억 유로로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덴마크(6억 유로), 독일(6억 유로), 아일랜드(5.4억 유로), 네덜란드(3.1억 유로) 등이 뒤를 잇고 있음.

그림 10. 한국의 EU 회원국별 서비스교역량 비교(2007년)

(단위: 백만 유로)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덴마크와 아일랜드의 경우, 이들의 경제규모와 교역규모에 비해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덴마크와는 운수와 특허권사용료에서, 아일랜드와는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임.

표 4. 서비스수지별 교역국 구분(2007년)

(단위: 백만 유로)

국가	무역수지 적자교역국	
	적자액(%)	서비스수지 적자 품목
영국	880 (23.4)	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
덴마크	602 (16.0)	운수, 특허권사용료
독일	597 (15.9)	운수, 특허권사용료, 보험서비스
아일랜드	542 (14.4)	사업서비스
네덜란드	313 (8.3)	사업서비스, 특허권사용료
그리스	301 (8.0)	운수
합계	3,235 (86.2)	
전체 누적적자액	3,754	

표 4. 계속

무역수지 흑자교역국		
국가	흑자액(%)	서비스수지 흑자 품목
이탈리아	241 (47.6)	운수, 건설서비스
스페인	134 (26.5)	
핀란드	36 (7.1)	운수, 사업서비스
헝가리	31 (6.1)	특허권사용료, 운수
슬로바키아	18 (3.6)	운수
루마니아	16 (3.2)	사업서비스, 금융서비스
합계	476 (94.1)	
전체 누적흑자액	506	

주: 1) ()의 숫자는 전체 누적적자 및 흑자액 대비 퍼센티지임.
 2) 전체 누적적자 및 흑자액은 적자 및 흑자액을 누적인 액수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EU에서 비교적 고소득 국가들과의 서비스수지에서 적자를 나타내는 반면 중저소득 국가들과의 서비스수지에서는 흑자를 기록함.
- o 특히 고소득국가와의 교역에서는 사업서비스, 특허권사용료, 금융서비스와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서 많은 적자를 나타냄.
- o 서비스수지 흑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양국(74.1%)의 운수와 건설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역에서는 특허권사용료,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하나, 그 비중과 액수가 미미한 실정임.

$$\text{현시비교우위 (RCA)} = \frac{X_{ik}/X_i}{M_{ik}/M_i}$$

- o X_{ik} : i국의 k산업 수출액, X_i : i국의 총수출액, M_{ik} : i국의 k산업 수입액, M_i : i국의 총수입액
- o RCA가 1보다 클 경우, 해당 산업에서 수출을 통한 비교우위가 높음을 뜻하며, 1보다 작은 경우 비교우위가 낮음을 뜻함.

표 5. 한·EU 간의 서비스산업별 RCA 비교(2006년)

	EU25				EU25				EU25		
	1	2	3		1	2	3		1	2	3
운수	1. 스웨덴	1.37	0.93	여행	1. 스페인	2.26	0.94	통신서비스	1. 슬로바키아	2.28	0.87
	2. 룩셈부르크	1.33			2. 그리스	2.19			2. 프랑스	1.63	
	3. 슬로바키아	1.13			3. 이탈리아	1.68			3. 벨기에	1.14	
	한국	1.51			한국	0.4			한국	0.82	
건설서비스	1. 포르투갈	1.29		보험서비스	1. 영국	2.8	1.01	금융서비스	1. 영국	3.72	1.87
	2. 벨기에	2.15			2. 스웨덴	2.05			2. 이탈리아	1.97	
	3. 프랑스	2.14			3. 벨기에	1.6			3. 아일랜드	1.87	
	한국	55.39			한국	0.55			한국	5.65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1. 아일랜드	35.79		특허권사용료	1. 스웨덴	1.75	0.67	사업서비스	1. 핀란드	2.19	0.97
	2. 룩셈부르크	1.96			2. 프랑스	1.72			2. 독일	1.41	
	3. 영국	1.87			3. 룩셈부르크	1.35			3. 영국	1.32	
	한국	0.42			한국	0.61			한국	0.89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	1. 영국	2.08		정부서비스	1. 룩셈부르크	6.4	0.82				
	2. 아일랜드	1.86			2. 독일	4.48					
	3. 스웨덴	1.34			3. 오스트리아	2.86					
	한국	0.74			한국	2.39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과 OECD 자료를 이용한 저자의 계산임

5. 한·EU 간 서비스산업 경쟁력 비교

가. 현시비교우위를 통한 비교

- 국가별 산업의 경쟁력은 무역을 통한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를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음.⁴⁾
-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특정 산업이 총수출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함으로써, 한 국가의 특정산업이 수출에 특화(비교우위)되어 있는지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지(비교열위)를 수치화하여 비교해 볼 수 있음.

4) 현시비교우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해당국 특정산업의 수출비중과 기준지역의 해당산업 수출비중 간의 비(ratio)인 Balassa index(BI)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됨. 여기서는 수출과 수입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음.

$$BI = \frac{X_{ik}/X_i}{X_{wk}/X_w}$$

X_{ik} : i국의 k산업 수출액, X_i : i국의 총수출액, X_{wk} : 세계의 k산업 수출액, X_w : 세계의 총수출액

- 11개의 서비스산업 분야 중에서 한국은 건설서비스, 금융서비스, 정부서비스 및 운수에서 EU보다 강한 비교우위를 보이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비교열위를 나타냄.

- 그러나 금융서비스와 운수에 있어서는 대EU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건설서비스의 경우 전체 서비스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정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고부가가치 산업인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보험서비스, 사업서비스, 특허권사용료 등에서 EU보다 약한 비교우위를 나타내며, 특히 EU 내의 선두국가 그룹과 비교할 때,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남.

- 여행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비교우위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

- 여행의 RCA는 ('00)1.05에서 ('06)0.40으로 크게 하락했으며 오락·개인·문화서비스도 ('00)0.93에서 ('06)0.74로 감소함.
- o 이는 여행수지 적자가 2000년 3억 달러에서 2006년 129.2억 달러로 늘어난 데 기인함.

- 대부분의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RCA는 증가했으나 건설, 정부서비스, 운수 등을 제외하고는 비교우위 분기점인 1을 넘지 못함.
- 서비스수지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는 EU 국가들의 RCA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크게 나타나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임.
- 영국, 룩셈부르크 등은 금융, 컴퓨터, 정보 및 특허권사용료 등에서 높은 RCA를 나타내며, 스페인, 그리스는 여행에서 높은 RCA를 기록함.
- 독일은 여행에서 낮은 RCA를 보이나, 그 외 대부분의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는 고르게 높은 RCA를 나타냄.

나. 노동생산성을 통한 비교

- 한국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서유럽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국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1996~2006년 기간 동안 유로존의 2/3 수준에서 유로존의 평균치(구매력평가기준, PPP)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전한 반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
- 2006년 국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일부 동유럽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의 수준을 밑돌며,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 시 그 격차는 더욱 커짐(룩셈부르크의 1/3, 프랑스의 절반 수준).
- 대미환율 적용 시, 서유럽국가들과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짐.

표 6. 한국과 EU 주요국 간 서비스산업별 노동생산성 비교(2006년) (PPP 기준)

	한국	유로존	독일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체코	폴란드
서비스산업 전체	100 (100)	178 (221)	168 (226)	146 (213)	192 (251)	289 (378)	109 (61)	117 (75)
▪ 도소매, 음식숙박업	100 (100)	271 (335)	221 (298)	227 (331)	284 (372)	320 (419)	212 (118)	265 (170)
▪ 운수창고 통신업	100 (100)	152 (194)	114 (153)	138 (201)	132 (173)	262 (343)	100 (56)	86 (55)
▪ 금융,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100 (100)	161 (197)	149 (201)	128 (186)	177 (232)	233 (305)	75 (42)	104 (67)
▪ 기타서비스업 (보건, 교육)	100 (100)	147 (182)	144 (194)	124 (182)	156 (204)	201 (263)	88 (49)	92 (59)
제조업	100 (100)	93 (116)	91 (123)	98 (143)	100 (161)	105 (167)	68 (82)	53 (89)

주: 1) ()의 수치는 대미환율 적용 시임.
 2) 유로존은 2006년기준 12개 유로화 사용국을 뜻함.
 3) 덴마크의 경우 2004년, 포르투갈의 경우 2003년 자료를 사용함.
 자료: 생산성본부(2008), 「생산성 국제비교」.

- 국내 서비스산업 중 내수 중심의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경우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해 EU와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남.
-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노동생산성(PPP 기준)은 2006년 유로존의 37%에 지나지 않는 반면, 그 외의 분야에서는 62~68%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음.
- 일부 서비스업종에서는 동유럽국가에 비해서 다소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여줌.

6.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간 서비스교역의 증가 추세는 강화될 전망이다.
- 한·EU FTA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미 FTA와의 균형, 이른바 ‘코리아 패리티(KORUS Parity)’를 기본으로 하나, 일부 분야에서는 한·미 FTA 수준 이상, 즉 ‘코리아 플러스(KORUS plus)’를 제한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한·EU FTA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한·EU FTA의 효과로 증가하게 되는 교역액 중 서비스 교역의 비중은 50%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Copenhagen economics 2007; 한국경제연구원 2009).

표 7. CGE 모델을 통한 한·EU FTA의 효과에 관한 연구

연구	서비스산업 관련 연구결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의 서비스생산이 0.8~3.5% 증가함.
Copenhagen economics (2007)	EU의 한국에 대한 총 수출증가의 50%가 서비스 부문에서 이루어짐(191억 유로의 수출증대 효과).
SIA(2008)	한국의 서비스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고용규모는 축소됨.
한국경제연구원(2009)	한국과 EU의 교역증가액(450억 달러) 중 50%가 서비스에서 이루어짐.

- 그러나 대EU 서비스수지 적자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의 대EU 서비스수지 적자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 서비스수지 적자는 더 가속화될 수 있음.
- o 원화가치의 하락과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8년 여행수지 적자가 대폭 감소했으나 원화가치와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경우, 적자폭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코러스 패리티’에 의거, 국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고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 사업 서비스, 특허권사용료 등 EU가 경쟁력을 지닌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서 EU의 한국시장 진출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 실제로 한·EU FTA에 미온적인 EU의 일부 제조업계와 달리 (예: 자동차업계) EU의 서비스업계는 한·EU FTA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함.⁵⁾
- 영국계 로펌들은 최근 영국 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국내 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EU FTA 타결 후 한국 법률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됨.⁶⁾
-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 무역개방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시 제조업 분야의 인력감소분이 내수관련 영세 서비스업으로 유입되는 노동이동 구조 하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어려움.
 - 실제로 국내 서비스업체는 규모가 영세하고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활성화와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영업형태, 노하우 등에 있어서 빠른 습득과 성장이 가능한 만큼, 시장개방과 동시에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한·EU FTA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음.
 - 한·미 FTA가 먼저 발효될 경우, 한·EU FTA의 추가적인 수입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수출기회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는 크게 나타남.
 -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를 체결할 경우 국내 시장에서 미국과 EU의 서비스업계가 경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시키는 한편,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음.
 - EU 일부 국가의 경우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한국보다 뒤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이 국가들을 상대로 산업별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장방어적 자세보다는 해외시장 진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KIEP**

5) European Service Forum(ESF) position paper(2008.11.10).

6) The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2009.2.3).